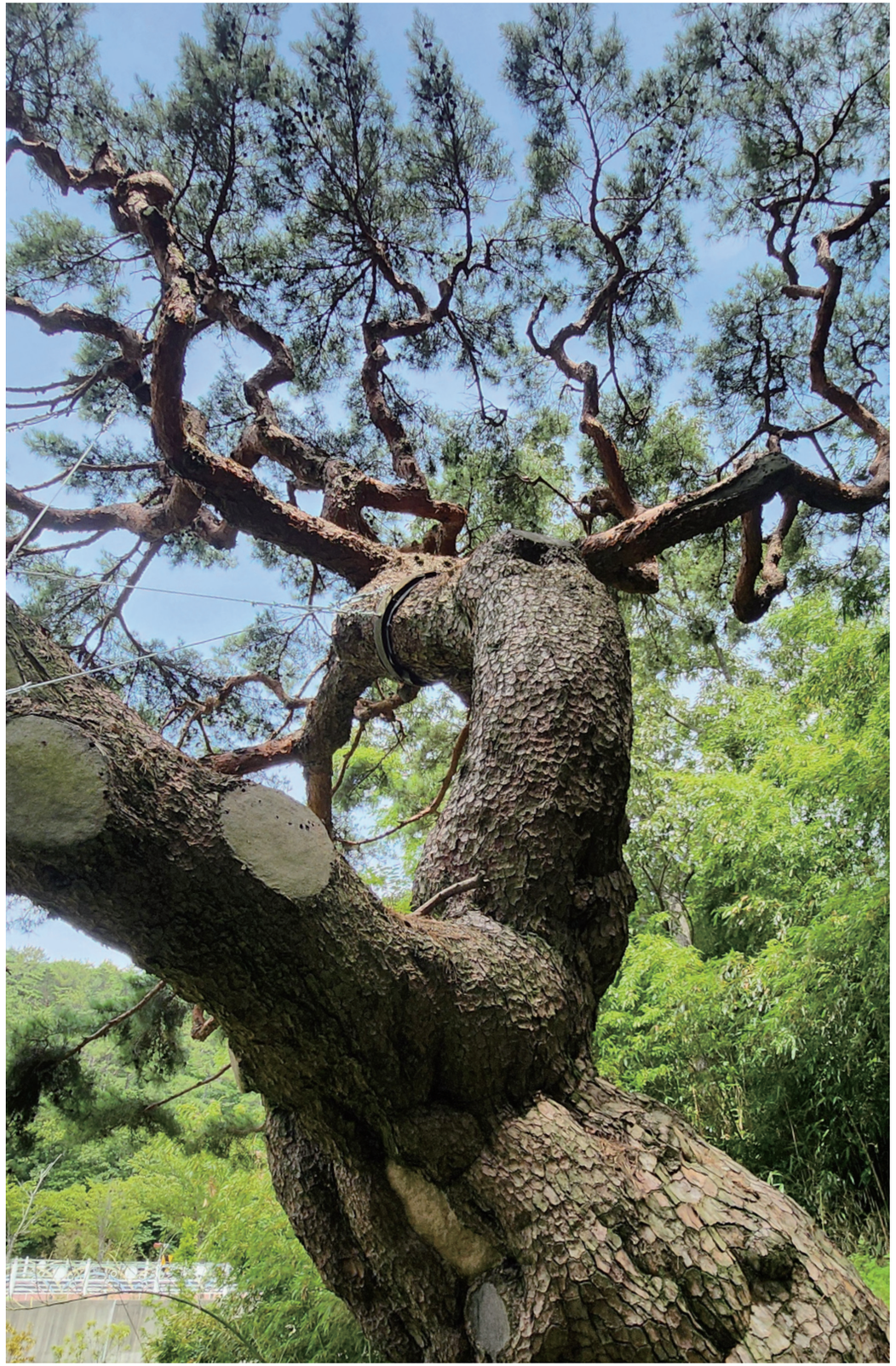
울산시의 최고령 나무로 등재한 소나무

지정번호 울산–12–29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울산
수령 610년
수고 12m
흉고둘레 4.5m

울산시 북구 정자동 산 20
35 ° 36 ′ 52.69 ″ N
129 ° 26 ′ 36.86 ″ E



어느 해에 울산시에서 천연기념물로 신청하였던 보호수(울산–12–29) 소나무는 죽전마을(대밭골마을)의 유포석보柳浦石堡 산성 터가 있는 서쪽의 비탈면에 자라고 있다. 유포석보는 울산시 정자동에 있는 조선시대의 성이며, 1998년 울산기념물 제17호로 지정되었다. 소나무의 나이는 6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2m, 가슴높이둘레는 450cm 정도이다. 밑동둘레는 46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1m 가량이다. 원줄기는 밑동 부분이 울퉁불퉁하게 혹처럼 생긴 것이 힘차게 보인다. 밑동 위쪽은 높이 3m 정도에서 3갈래로 갈라진 후 높이 7m 정도에서 다시 가지 줄기가 구불구불하게 갈라져 있다. 높이 3~7m까지의 원줄기는 말라 죽는 몇 개의 가지 줄기가 절단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동산의 비탈면에서 비스듬하게 처져 있는 줄기는 철재 받침대가 고정하고 있다. 생육상태는 보통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이름 유래와 관련이 있다. 대나무가 많은 죽전마을은 예조판서 김비金秘가 조선 태종 때 여흥민씨 집안의 모반(국가나 군주의 전복을 꾀함)을 피하여 울산으로 내려오면서 시작되었다. 소나무는 그 당시에 김비가 심었으며, 지금도 소나무 옆과 뒤쪽에 왕대나무가 군락으로 자라고 있다. 소나무는 오랫동안 세전송世傳松으로 부르다가 1982년 보호수로 지정하면서 활만송活萬松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활만송의 이름은 울산 김씨 집안에서 지었으며, '활기차게 만년을 살라'는 의미이다. 그들의 후손들은 활만송을 마을의 안녕과 가문의 번영을 기원하는 당산나무(당산목)로 삼았고, 매년 정월대보름과 팔월대보름에 정성껏 제를 지내왔지만 몇 년 전부터 제를 지내지 않고 있다. 현재는 제당마저 없어졌다. 방문객과 제를 지내는 사람들이 동산 위를 오르는 돌계단이 잘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활만송은 2004년 '울산 기네스북'에 울산시의 최고령 나무로 등재하였다. 2010년 무렵에는 새로운 도로 계획이 이 소나무 바로 옆을 지나도록 설계되면서 뿌리가 고사할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여러 시민단체의 노선변경 요구로 넓은 도로가 약간 벗어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